

[아시아투데이]건국대, KU 중국기업연구소

창설 기념 세미나 개최(2014.02.20)

아시아투데이 조항일 기자 = 건국대학교는 KU 중국연구원 산하에 KU 중국 기업연구소를 신설, 서울 광진캠퍼스 새천년관 국제회의장에서 ‘중국의 창의·혁신형창업 발전 및 한·중 협력 모델’이라는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20 일 개최했다.

이번 세미나에는 쉬징홍 중국 칭화지주회사 이사장 등 CEO 3 명과 중국의 대표적인 엔젤투자자 류즈쉬 사장이 참석했다.

칭화홀딩스는 중국 칭화대학의 산학연 기업집단으로 현재 총자산은 800 억 의안에 달하며 100 여개의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다.

이번 세미나에서 쉬 이사장은 ‘중국의 창신경제와 중·한창신경제 협력’을 주제로,류 사장은 ‘창신과 금융 결합 : 중국 혁신형 기업의 금융조달’이라는 주제로 연구발표를 진행했다.

한국에서는 김광선 한국기술교육대학 교수가 ‘한국의 창조경제와한중 창조 경제 합작’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 중 양국의 창조-창신 경제 공동 발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논문을 발표했다.

송희영 건국대 총장은 “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양국 학자와전문가들이 활발한 토론을 통해 많은 건설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한다”고 말했다.

hijoe77@asiatoday.co.kr